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Report | 2026.09.16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Research AI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당사가 정확성
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KOSDAQ | 산업재/자본재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74090)

Company Overview

설립일	2013년 04월 08일
상장일	2020년 03월 03일
특례 상장 유형	이익미실현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주요 사업	항공가공품 및 조립품
본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외국 기업로 152-44
홈페이지	www.kenco.com
주요 주주	케플러 주식회사 25.76%
수출 비중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Investment Keywords

원소재-부품-MRO 원스톱 사업모델, 한국-미국 우주항공 생
산거점

한국거래소 공시

2026-08-14	16:47	반기보고서(일반법인)(2026.06)
2026-06-02	15:55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5-28	15:53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5-15	17:59	분기보고서(일반법인)(2026.03)
2026-04-29	16:38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26-03-31	18:02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30	16:52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3-23	17:54	감사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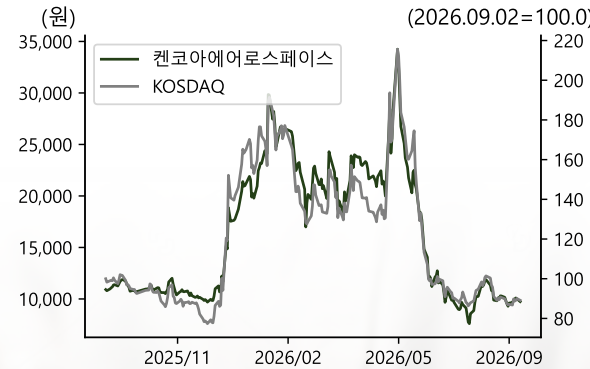
주요지표

연도	매출액(억 원)	영업이익(억 원)	지배주주순이익(억 원)	EPS(원)	P/E(배)	P/B(배)	ROE(%)
2023	911	9	-18	-146	N/A	2.8	-3.8
2024	862	-54	-77	-597	N/A	0.7	-6.4
2025	764	-92	-155	-1,183	N/A	1.5	-9.0
1H26	577	14	13	-	-	-	-

Company Data

현재가 (09/14일)	9,740원
52주 최고가/최저가	34,250원/7,6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34십억원
발행주식수	14백만주
평균거래량(60일)	19만주
1개월/6개월/12개월 수익률(%)	-18.0/-56.1/-14.5
외국인 지분율	9.1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기업 개요

1 주요 제품 및 연혁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2013년 4월 8일에 항공기 및 동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종속회사와 함께 여객기·화물기 개조사업 및 군용기 개조 창정비를 포함하는 항공 MRO(정비·수리·분해점검), 항공기 구조물 생산 및 항공기 부품의 가공, 우주 및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 원소재 공급, 우주발사체 파트의 생산, UAM(도심항공모빌리티)/드론의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026년 2분기 공시 기준 연결기준 품목별 매출 비중은 미국 민수 및 방산 항공기·우주발사체 49%, 우주항공원소재 24%, MRO(군용기, P2F Conversion) 16%, 국내 민수 및 방산 항공기 11%로 구성된다.

설립 이후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외 인수와 수주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17년 1월 미국 조지아주 소재 Kenco Aerospace LLC를 인수하고, 2017년 4월 항공원소재 공급업체인 California Metal & Supply Inc.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51%를 취득하여 연결대상에 편입했다. 이후 2020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2020년 4월 ST ENGINEERING AEROSPACE LTD로부터 STEA AIRBUS P2F(화물기 개조) 사업 2,629억원을 수주하고, 2021년 10월 P2F 대형 동체구조물 양산 사업 1,213억원을 수주했다. 2024년 3월에는 EMBRAER S.A.로부터 C-390 사업 605억원을 수주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KOSDAQ 274090 | 항공 MRO · 항공기 부품 · 우주항공원소재 · 우주발사체/UAM

핵심 사업영역

미국 민수·방산

항공기 부품 가공
우주발사체 파트
SLS-엔진 부품
매출비중 49%

우주항공원소재

항공·방산 원소재
특수 원소재 공급
California Metal
매출비중 24%

항공 MRO

P2F 화물기 개조
군용기 창정비
개조부품 기술
매출비중 16%

국내 민수·방산

항공기 구조물 생산
부품 가공·조립
UAM/드론 기체
매출비중 11%

핵심 경쟁력

One-stop 솔루션

원소재·가공·조립
MRO·완제기까지
통합 사업모델

글로벌 생산거점

한국 사천 3개소
미국 조지아·캘리포니아
아시아·북미 커버

Tier 1 기술력

약 20년 축적 기술
한국 원가경쟁력
기술영업 역량

품질 인증

AS9100·NADCAP
ITAR 등록
고객사 공정인증

고객 다변화

민수·방산·우주
글로벌 포트폴리오
의존도 리스크 완화

최근 실적 및 성과

·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 577억원 (YoY +50.0%)
· 영업이익 14억원·순이익 13억원 흑자전환 |

· EMBRAER C-390 605억원, STEA P2F 2,629억원 수주
· 2025년 조지아 열처리 기업 인수 등 생산능력 확장

기업정보

2013년 설립
2020년 코스닥 상장 (사천 본사)

주요 제품

항공기 구조물 부품, P2F 개조
원소재, 발사체 파트, UAM/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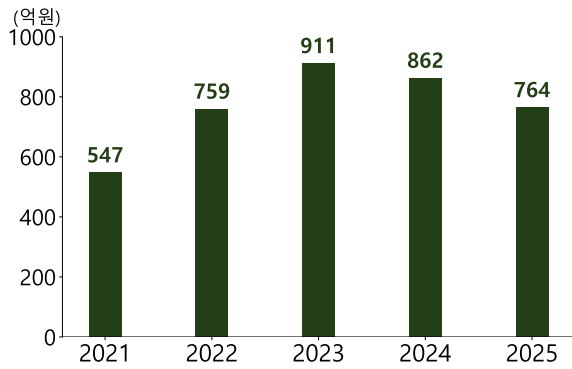
주요 고객

Boeing, Lockheed Martin, Space X
대한항공,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업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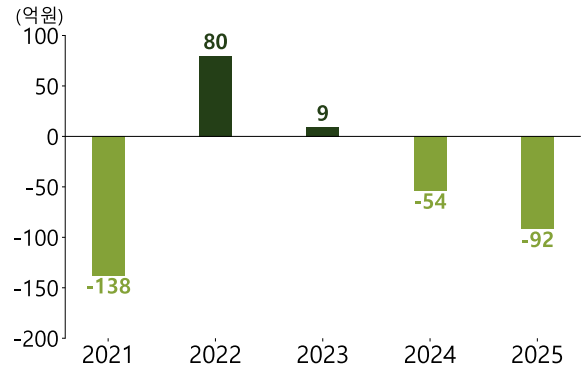
Global Total
Solution Provider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매출 (2021년 ~ 2025년)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영업이익 (2021년 ~ 2025년)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생산 거점은 한국과 미국에 분산되어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 제1공장, 제2공장 및 항공우주물류센터 총 3개소의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California Metal & Supply Inc, 조지아주 소재 Kencoa Aerospace LLC 등 해외 2개소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매출처는 Boeing, Spirit AeroSystems, Gulfstream Aerospace 등 민항기 제조업체와 Boeing, Lockheed Martin, Pratt & Whitney 등 방산 항공기 제조업체, NASA, Space X, Blue Origin 등 우주항공업체이며, 국내에서는 한국우주항공(주), (주)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등과 거래하고 있다. 원소재 공급부터 부품 가공 및 조립, MRO, 소형 완제품 생산까지 수행하는 One-stop Solution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종합하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설립 초기 국내 항공기 부품 제조에서 출발하여 미국 생산법인 인수와 원소재 공급업체 지분 취득으로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했고, 코스닥 상장 이후 P2F 개조와 해외 완제품 구조물 수주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2026년 2분기 공시 기준 미국 민수·방산 항공기 및 우주발사체 부문이 매출의 49%를 차지하는 가운데 원소재 공급, MRO, 국내 항공기 부문이 매출을 담당하는 구조로, 우주발사체와 UAM/드론 등 신규 영역을 포함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

2 주주 구성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최대주주는 케플러 주식회사로 2026년 6월 30일 기준 3,548,261주(25.76%)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2024년 4월 11일 기존 최대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양수도 계약 체결로 케플러 주식회사로 변동됐다. 케플러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LEE KENNETH MINKYU와 케플러투 주식회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플러투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페트라9호사모투자 합자회사(지분 100%)이다. 최대주주 외 기타 주주의 지분율은 74.24%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는 48,895명으로 전체 주주의 99.98%를 차지하며, 소액주주 보유 주식은 8,495,029주로 총발행주식수의 61.67%에 해당한다. 자기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주식 총수 13,774,207주 전량이 유통주식에 해당한다. 2026년 상반기 중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669,457주가 신규 발행되어 발행주식수는 기초 13,104,750주에서 13,774,207주로 증가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요 주주 현황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3 실적 추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77억원으로 전년 동기(385억원) 대비 5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7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며, 지배주주 당기순이익도 13억원으로 전년 동기 -29억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6년 2분기(3개월) 기준으로는 매출액 285억원으로 전년 동기(216억원) 대비 31.9% 증가했고, 영업이익 12억원과 지배주주 순이익 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영업손실 -18억원, 순손실 -26억원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매출유형별로는 제품매출액이 562억원으로 전년 동기(374억원) 대비 증가했고, 용역매출액은 15억원으로 전년 동기(11억원) 대비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미국 민수 및 방산 항공기·우주발사체 부문 매출이 28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4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우주항공원소재 부문이 139억원으로 24%, MRO(군용기, P2F Conversion) 부문이 93억원으로 16%, 국내 민수 및 방산 항공기 부문이 60억원으로 11%를 각각 구성했다. 지역별 매출은 미국 301억원, 브라질 100억원, 싱가포르 83억원, 국내 77억원, 기타 국가 16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매출 비중은 13.4%로 집계됐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주요 매출처가 해외 항공기 부품 제작사로 매출의 약 80% 이상이 해외 수출을 통해 달러화 등 외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시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고객 2개사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전체 수익의 각각 17.29%, 14.34%로 나타났다. 한편 지배주주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음에도 신종자본증권 배당을 차감한 기본주당손익은 -50원으로 산출됐다.

연간 실적

(단위: 백만 원)

해당 년도	매출액	영업손익	영업손익률 (%)
2025년	76,394	-9,231	-12.1
2024년	86,154	-5,352	-6.2
2023년	91,143	877	1.0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반기 실적

(단위: 백만 원)

	2026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28,474	57,698	21,590	38,474
영업손익	1,184	1,402	-1,801	-1,695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산업 현황

1 한눈에 보는 산업 현황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속한 우주항공산업은 여객기-화물기 개조를 포함하는 항공 MRO(정비·수리·개조), 항공기 구조물 생산 및 부품 가공, 특수 원소재 공급, 우주발사체 파트 생산, UAM(도심항공모빌리티)/드론 제작 등으로 구성된다. 항공기 제조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인증 기반 산업으로, 항공기 부품 제조 관련 인증인 AS9100을 비롯하여 최종 고객사인 AIRBUS, BOEING 등 주요 항공사의 기술 및 품질 인증을 확보해야만 항공기 부품 및 동체의 납품이 가능하다.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 여객 항공 수요의 증가에 따라 항공부품 제조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경쟁 구도 측면에서는 국내 인건비 상승과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저임금 경쟁으로 인해 단순 외주형 사업 모델만으로는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규제 환경으로는 고객사와의 NDA(비밀유지계약) 및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적용되어 방산 관련 거래 정보의 공개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본사와 미국 조지아, 캘리포니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및 북미 대륙을 아우르는 생산 거점을 운영하며, 약 20년에 걸쳐 축적된 Tier 1 기술력과 미국 대비 한국의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또한 원소재 공급부터 부품 가공 및 조립, MRO, 소형 완제기 생산까지 수행하는 One-stop Solution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단순 외주형 모델과 구분되는 사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는 산업 현황

Q1.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 산업에 속해 있나?

A1.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사업 영역은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주 및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 원소재 공급, 항공기의 생산 및 항공기 부품의 제조, 군용기 개조 창정비 및 여객기-화물기 개조사업을 포함하는 항공 MRO, 우주발사체 관련 파트의 생산, UAM의 개발·제조 부문이 이에 해당한다. MRO(항공기 정비·수리·개조)와 P2F(여객기의 화물기 개조)까지 포괄하는 사업 구조를 통해 항공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을 영위한다.

Q2.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속한 항공기 부품 제조산업의 특성은 무엇인가?

A2. 항공기 제조산업은 품질 인증이 진입 요건으로 작용하는 산업이다. 항공기 제조산업의 특성상 항공기 부품 제조 관련 인증인 AS9100을 비롯하여 최종 고객사인 AIRBUS, BOEING 등 주요 항공사의 기술 및 품질 인증을 확보해야만 항공기 부품 및 동체의 납품이 가능하다. 또한 우주항공산업에서는 품질 요구조건의 철저한 준수가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며, 항공산업 특성상 기술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AS9100 등 인증과 고객사 공정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Q3. 항공부품 산업의 경쟁 구도 속에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모델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

A3. 현재 항공산업은 국내 인건비 상승과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저임금 경쟁으로 인해 단순 외주형 사업 모델만으로는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Global Total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하며, 원소재 공급부터 부품 가공 및 조립, MRO, 소형 완제기 생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One-stop Solution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약 20년에 걸쳐 축적된 Tier 1 기술력과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한국 원가 경쟁력도 수주 경쟁의 요소로 작용한다.

Q4. 최근 항공부품 제조산업의 수요 트렌드는 어떠한가?

A4. 최근 여객 항공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항공부품 제조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고객사로부터의 수주 계약 및 신규 오더 증가를 통해 글로벌 항공 Supply Chain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주요 매출처는 Boeing, Spirit AeroSystems, Gulfstream Aerospace 등의 민항기 제조업체와 Boeing, Lockheed Martin, Pratt & Whitney 등의 방산 항공기 제조업체, 그리고 NASA, Space X, Blue Origin 등의 우주항공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민수·방산·우주 수요에 걸친 매출 기반을 보유한다.

Q5.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산업 성장에 대응해 어떤 생산능력 확충을 진행하고 있나?

A5.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지속적인 수주량 증가에 따라 각 생산기지의 생산설비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본사는 신규사업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유휴부지에 가공동 증축을 진행하여 2025년 6월 준공하였고, 가공판금 설비 설치 및 관련 인증 절차를 2025년 3분기 중 완료했다. 제2공장은 미익 사업 및 복합재 기반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증축을 진행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미국에서는 2025년 10월 Georgia 소재 열처리 전문기업을 인수하여 1,600평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열처리 공정 역량을 확대했다.



핵심포인트

1 한눈에 보는 핵심포인트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핵심 경쟁 요소는 원소재 공급부터 부품 가공 및 조립, MRO, 소형 완제기 생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One-stop Solution 기반의 사업 모델과 한국 본사와 미국 조지아, 캘리포니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및 북미 대륙을 아우르는 생산 네트워크이다. 주요 매출처는 Boeing, Spirit AeroSystems, Gulfstream Aerospace 등 민항기 제조업체와 Lockheed Martin, Pratt & Whitney 등 방산 항공기 제조업체, NASA, Space X, Blue Origin 등 우주항공업체로 구성되어, 국내는 한국우주항공,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거래하고 있다. 2020년 ST ENGINEERING AEROSPACE로부터 P2F 화물기 개조 사업 2,629억원을, 2024년 EMBRAER로부터 C-390 사업 605억원을 수주하며 고객 기반을 확대했다. 성장동력 측면에서는 본사 유휴부지 가공동을 2025년 6월 준공하고, 제2공장은 미익 사업 및 복합재 기반 신규사업 대응을 위한 증축을 거쳐 2025년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했으며, 2025년 10월 미국 조지아 소재 열처리 전문기업 인수로 약 13,000평 부지 내 1,600평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는 등 생산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매출의 약 80% 이상이 외화로 계약되고 원재료 매입액의 약 80% 이상이 수입으로 조달되어 수익과 비용 모두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내 인건비 상승과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저임금 경쟁은 수익성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질의응답으로 살펴보는 핵심포인트

Q1.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A1.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및 종속회사는 여객기-화물기 개조사업 및 군용기 개조 창정비를 포함하는 항공 MRO, 항공기 구조물 생산 및 항공기 부품의 가공, 우주 및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 원소재 공급, 우주발사체 파트의 생산, UAM/드론의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생산거점은 한국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제1공장, 제2공장 및 항공우주물류센터 총 3개소의 사업장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California Metal & Supply Inc, 조지아주 소재의 Kencoa Aerospace LLC 해외 2개소의 사업장으로 구성된다.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사업장 배치가 사업구조의 기반이다.

Q2. 기술 및 품질 인증 확보 현황은 어떠한가?

A2. 항공기 제조산업의 특성상 AS9100을 비롯하여 최종 고객사인 AIRBUS, BOEING 등 주요 항공사의 기술 및 품질 인증을 확보해야 납품이 가능하며,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부품 및 동체 조립과 관련된 각종 기술 및 품질 인증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법인은 AS9100, NADCAP 열처리 인증 등을 보유하고, Kencoa Aerospace LLC는 미 군수품 생산을 위한 국제 무기거래규정에 따른 ITAR 인증을 보유한다. 고객사 공정인증으로는 BOEING-Spirit Aerosystems의 DPD/MBD 인증, Lockheed Martin의 판금성형 공정 승인, EMBRAER의 21개 이상 공정 인증 등을 확보하고 있다.

Q3. 기존 항공부품사와 구별되는 사업모델의 특징은 무엇인가?

A3. 항공산업은 국내 인건비 상승과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저임금 경쟁으로 단순 외주형 사업 모델만으로는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Global Total Solution Provider'를 지향하며 원소재 공급부터 부품 가공 및 조립, MRO, 소형 완제품 생산까지 수행할 수 있는 One-stop Solution 기반의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또한 한국 본사와 미국 조지아·캘리포니아 사업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및 북미를 아우르는 지정학적 강점과, 약 20년에 걸쳐 축적된 Tier 1 기술력 및 한국 원가 경쟁력이 수주 활동의 기반이 된다.

Q4. 환율 등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 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가?

A4. 매출의 약 80% 이상이 해외 수출을 통해 달러화 등 외화로 계약되고, 전체 원재료 매입액의 약 80% 이상이 수입으로 조달되어 수익과 비용 모두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의 최소화를 외환위험 관리 목표로 삼고 있다. 원재료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 원소재에 대한 AIRBUS 인증을 진행하여 국산화를 일부 진행 중이고, 원재료 가격이 20% 이상 변동될 경우 고객사와 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사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다변화로 특정 고객사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는 전략을 병행한다.

Q5. 향후 성장을 위한 설비 및 신사업 전략의 방향은 무엇인가?

A5.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지속적인 수주량 증가에 따라 각 생산기지의 생산설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본사는 가공동 증축을 2025년 6월 준공하고 가공판금 설비 설치 및 인증 절차를 2025년 3분기 중 완료했으며, 제2공장은 미익 사업 및 복합재 기반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증축을 진행해 2025년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했다. 미국에서는 2025년 10월 조지아 소재 열처리 전문기업을 인수해 1,600평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우주 발사체 및 항공기 핵심 부품 생산을 위한 열처리 공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신규 설비의 양산 확대 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Valuation

1 최근 주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026년 9월 14일 기준 9,740원을 기록했으며, 최근 6개월(2026년 3월 16일~9월 14일) 최고가 34,250원(2026년 5월 26일) 대비 -71.6%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최저가는 7,600원(2026년 7월 30일)으로, 현재 주가는 최저가 대비 28.2% 상승한 상태다. 2026년 3월과 4월에는 평균 주가가 각각 21,769원과 22,122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며, 5월 들어 최고 34,250원까지 상승한 후 6월에는 최저 11,200원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이후 7월 30일 기간 내 최저가인 7,600원을 기록했고, 9월에는 9,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2026년 3월 15일 1,138.29에서 2026년 9월 10일 820.64로 -27.9% 하락하였고,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기간 -53.8% 하락하며 시장 대비 -25.9%p 하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1,340억원 수준이고 일평균 거래량은 60일 기준 19만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평균 거래액은 21억원 수준이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은 -18.0%, 12개월 수익률은 -14.5%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가 2026년 9월 10일 기준 820.64포인트를 기록하는 가운데,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기간 내 최고가 대비 큰 폭의 조정을 거친 상태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및 공시 이벤트



자료: 한국거래소 시장정보

한국거래소 공시 (최근 1년)

공시날짜	공시시간	보고서명
2026-08-14	16:47	반기보고서(일반법인)(2026.06)
2026-06-02	15:55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5-28	15:53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5-15	17:59	분기보고서(일반법인)(2026.03)
2026-04-29	16:38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26-03-31	18:02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30	16:52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3-23	17:54	감사보고서 제출
2026-03-23	17:46	[연결포함]사업보고서(일반법인)(2025.12)
2026-03-17	13:49	[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3-16	17:5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6-03-16	17:51	참고서류
2026-02-27	17:59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2026-02-27	16:06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2-13	15:47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2-10	15:56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2-03	15:42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2-02	15:41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1-28	15:46	[정정]단일판매 · 공급계약체결

공시날짜	공시시각	보고서명
2026-01-27	15:43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1-23	20:00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
2026-01-19	15:48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1-16	15:42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26-01-13	15:53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1-12	15:40	추가상장(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2026-01-06	20:02	투자경고종목지정
2026-01-05	20:02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2025-12-24	20:01	(예고)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2025-12-24	20:00	[투자주의]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2025-12-12	11:22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5-11-24	16:45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5-11-14	17:06	분기보고서(일반법인)(2025.09)

한국거래소 공시정보

2 전년도말 기준 밸류에이션

5. Valuation — 2025년말 기준 밸류에이션

주요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P/E(배)	N/A	45	N/A	N/A	N/A
P/B(배)	6	3.9	2.8	0.7	1.5
P/S(배)	2.8	1.9	1.7	1.5	3.0
EV/EBITDA(배)	-21.0	16.4	34.6	128.9	-149.0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692	269	-146	-597	-1,183
BPS(원)	2,169	3,115	4,569	14,188	12,229
SPS(원)	4,710	6,287	7,191	6,674	5,84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62.6	10.2	-3.8	-6.4	-9.0
ROA	-20.0	2.7	-1.3	-3.8	-6.4
ROIC	-20.4	9.1	2.0	-4.9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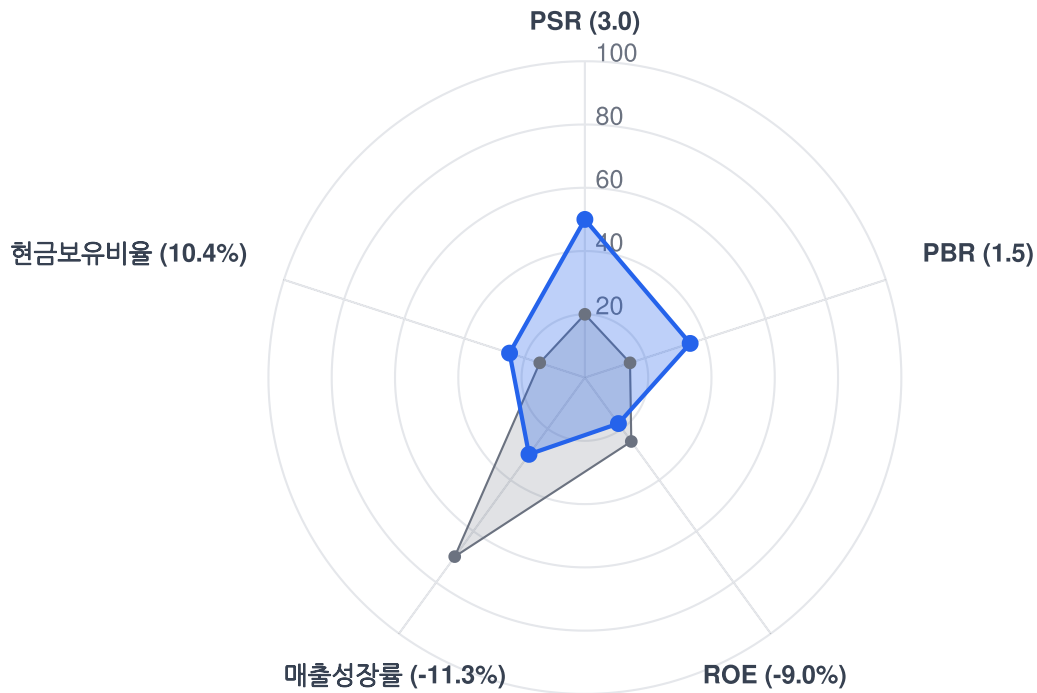
주: 각 연도말 추가 기준
자료: FnGuide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2025년말 기준 밸류에이션 지표는 전년 대비 상승했다.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P/E는 산정 불가하며, EV/EBITDA는 -149.0배로 EBITDA 손실 상태다. P/B는 전년(2024년) 0.7배에서 2025년 1.5배로, P/S는 1.5배에서 3.0배로 각각 상승했다. ROE는 전년(2024년) -6.4%에서 2025년 -9.0%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으며 배당수익률은 0.0%다. 이러한 지표 변화는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862억원에서 764억원으로 11.3%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54억원에서 -92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77억원에서 -155억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나타났다. EBITDA는 전년 8억원에서 2025년 -17억원으로 적자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EV/EBITDA 배수가 음수로 전환되었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피어그룹인 아스트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2,544억원, 영업이익 74억원, 당기순손실 -88억원을 기록했다. 아스트의 밸류에이션 지표는 당기순손실로 P/E 산정 불가이며, P/B 0.8배, P/S 0.9배, EV/EBITDA 17.3배, ROE -2.9%를 나타냈다. 하이즈항공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 846억원, 영업이익 46억원, 당기순이익 24억원을 기록했으며, 밸류에이션 지표는 P/E 19.9배, P/B 1.0배, P/S 0.5배, EV/EBITDA 10.2배, ROE 5.3%를 나타냈다. 켄코아에어로스

페이스는 당기순손실로 P/E 비교가 불가능하여 P/B와 P/S를 비교한다.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P/B 1.5배는 아스트의 0.8배와 하이즈항공의 1.0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P/S 3.0배 역시 아스트의 0.9배와 하이즈항공의 0.5배 대비 높다. 피어 2개사는 2025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반면,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손실 폭이 확대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P/B와 P/S 배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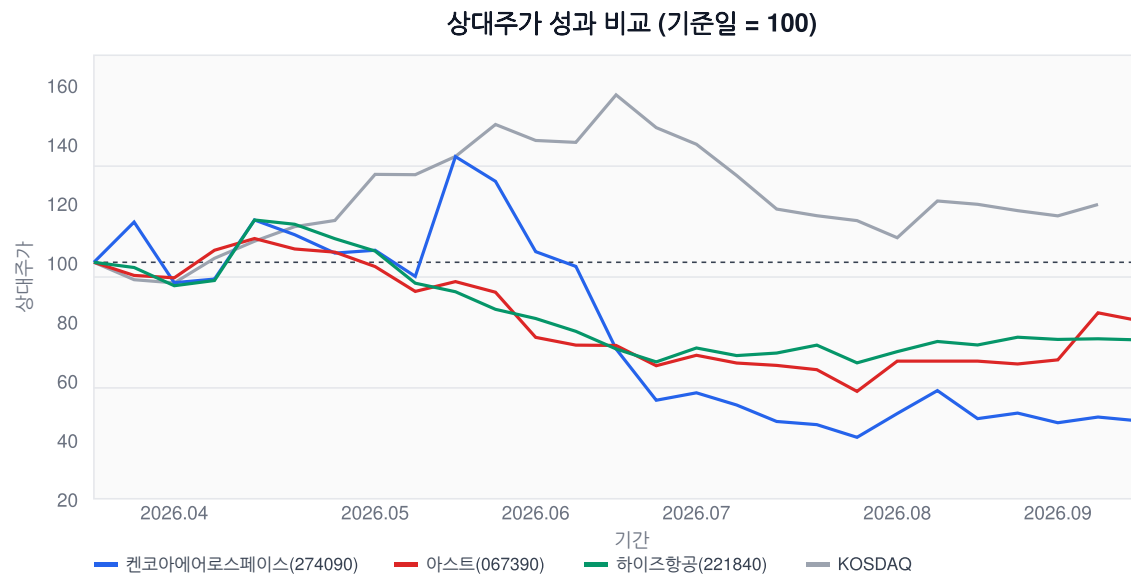
밸류에이션 레이더 차트 (2025년 기준)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피어그룹 평균 (아스트, 하이즈항공)

※ 적자 기업 대응: PSR, 매출총이익률, 현금보유비율 적용

※ 괄호 안은 실제 수치 (2025년 기준)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547	759	911	862	764
증가율(%)	72.8	38.7	20.2	-5.5	-11.3
매출원가	606	607	810	799	722
매출원가율(%)	110.7	80.1	88.8	92.7	94.5
매출총이익	-59	151	102	63	42
매출총이익률(%)	-10.7	19.9	11.2	7.3	5.5
판매관리비	79	71	93	116	135
판매관리비율(%)	14.4	9.4	10.2	13.5	17.6
EBITDA	-96	128	61	8	-17
EBITDA 이익률(%)	-17.5	16.8	6.7	1.0	-2.3
증가율(%)	적지	흑전	-51.8	-86.5	적전
영업이익	-138	80	9	-54	-92
영업이익률(%)	-25.2	10.5	1.0	-6.2	-12.1
증가율(%)	적지	흑전	-89.0	적전	적지
영업외손익	-63	-38	-20	-9	-42
금융수익	27	44	65	51	83
금융비용	71	77	86	46	54
기타영업외손익	-19	-5	1	-14	-7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1
세전계속사업이익	-200	42	-11	-63	-135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4	9	8	14	20
계속사업이익	-196	32	-18	-77	-155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96	32	-18	-77	-155
당기순이익률(%)	-35.9	4.3	-2.0	-8.9	-20.3
증가율(%)	적지	흑전	적전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96	32	-18	-77	-155

자료: FnGuide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4	-38	-73	-226	-6
당기순이익	-196	32	-18	-77	-155
유형자산 상각비	35	42	45	54	68
무형자산 상각비	7	6	8	8	7
외환손익	2	8	3	-10	-2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9	-157	-132	-265	-82
기타	108	31	22	64	157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1	-130	-42	-862	14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7	-85	13	-111	63
유형자산의 감소	6	8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7	-40	-52	-242	-261
기타	-3	-12	-3	-509	344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37	68	149	1123	-58
차입금의 증가(감소)	-62	-17	55	-34	135
사채의 증가(감소)	294	94	103	-113	-140
자본의 증가	13	0	0	1	0
배당금	0	0	0	-20	-39
기타	-9	-9	-9	1289	-14
기타현금흐름	1	1	0	1	-0
현금의증가(감소)	91	-91	34	45	83
기초현금	81	172	81	115	160
기말현금	172	81	115	160	243

자료: FnGuide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506	643	829	1590	1168
현금성자산	172	81	115	160	243
단기투자자산	0	14	13	574	66
매출채권	87	137	169	184	178
재고자산	229	363	499	610	621
기타유동자산	18	48	34	63	60
비유동자산	561	654	670	940	1160
유형자산	351	348	364	565	771
무형자산	101	109	109	97	104
투자자산	22	107	123	180	190
기타비유동자산	87	90	74	99	95
자산총계	1066	1297	1499	2531	2328
유동부채	594	697	682	500	384
단기차입금	63	49	98	117	109
매입채무	60	73	93	55	60
기타유동부채	471	575	491	328	215
비유동부채	216	219	232	198	341
사채	16	0	5	0	0
장기차입금	82	88	89	68	197
기타비유동부채	118	131	139	130	144
부채총계	810	916	915	697	725
지배주주지분	256	381	584	1832	1603
자본금	59	61	64	65	66
자본잉여금	705	767	986	2268	2243
기타자본	0	0	0	0	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9	32	39	104	91
이익잉여금	-517	-480	-505	-604	-797
자본총계	256	381	584	1833	1604

자료: FnGuide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P/E(배)	N/A	45	N/A	N/A	N/A
P/B(배)	6	3.9	2.8	0.7	1.5
P/S(배)	2.8	1.9	1.7	1.5	3.0
EV/EBITDA(배)	-21.0	16.4	34.6	128.9	-149.0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692	269	-146	-597	-1,183
BPS(원)	2,169	3,115	4,569	14,188	12,229
SPS(원)	4,710	6,287	7,191	6,674	5,840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62.6	10.2	-3.8	-6.4	-9.0
ROA	-20.0	2.7	-1.3	-3.8	-6.4
ROIC	-20.4	9.1	2.0	-4.9	-6.7
안정성(%)					
유동비율	85.1	92.2	121.5	318.1	304.4
부채비율	317.0	240.1	156.6	38.0	45.2
순차입금비율	183.8	158.5	88.7	-10.6	14.8
이자보상배율	-4.1	2.0	0.2	-1.4	-3.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6	0.6	0.7	0.4	0.3
매출채권회전율	8.2	6.8	6.0	4.9	4.2
재고자산회전율	2.4	2.6	2.1	1.6	1.2

자료: FnGuide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당사)가 공시자료(DART, KIND 등) 등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입니다.

당사가 본 보고서의 기초가 된 원본 공시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독자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으므로, 공시자료의 부정확성이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본 보고서의 내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서는 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해당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 여부, 시기, 조건 등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보고서의 이용자는 이러한 면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외에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이하의 사항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며, 본 보고서 발행으로 당사는 어떠한 수수료나 재산상 이익도 수취하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투자분석사가 작성·검수한 자료가 아닙니다.

▣ 당사와 검수자는 본 보고서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와 검수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투자나 가치판단에 관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AI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것이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 또는 이용자는 당사에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search@kirs.or.kr)